

발레로 빚어낸 한국적 아름다움

고전의 재해석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

<1>유니버설 발레단 창작발레 '춘향' x '심청'



유니버설발레단이 지난 5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인 '2019 춘향' 1막 단오 장면. /유니버설발레단 제공(사진=김경진)

지난 11~13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창작발레 '심청'이, 11~12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춤 심청'이 공연됐다. 유니버설발레단은 4일부터 6일까지는 같은 무대에서 창작발레 '춘향'을 무대에 올렸다. 광주시립발레단도 전통문화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발레 '달빛 아리랑'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였다.

한국 고전, 발레에 녹여 최고 감동 선사 올해 창단 35주년...발레한류 이끈 주역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통의 한복, 매혹적인 기생의 춤, 강렬한 남성 군무, 한국 전통의 규방, 다듬이와 곱판대, 부채와 샷갓, 잔치상에 엿장수까지... 발레에서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무대는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고전이 서양의 발레와 만났다.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듯 무대는 한국의 고전을 발레라는 그릇에 녹여내며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다.

스트라의 연주로 사랑, 절정, 관능 등을 아낌없이 표현하며 발레 '춘향'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 '춘향'과 '심청'은 세계 무대에 K-발레, 발레한류를 일으킨 작품이다. 그동안 평단과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아왔다. 지난 4~6일과 11~13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른 두 작품은 좀 더 특별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이 올해 창단 35주년을 맞아 의상, 안무, 음악, 무대, 영상 등을 모두 새롭게 각색해 선보인 무대였기 때문이다.

차 무대를 관람했는데 푸른눈의 발레리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블라디미르 쉬클리아로프가 객원 주역으로 이공룡을 열연했다. 한복을 입고 갖을 쓴 푸른눈의 동룡의 춤사위는 그 테크닉과 섬세한 감정표현이 돋보이며 춘향 역의 감미선과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다. 방자와 향단의 익살스러운 리브라인 또한 볼거리였으며, 전체 무용수들은 최고 기량을 선보이며 무대를 탄탄하게 뒷받침 했다.

발레 춘향은 유니버설발레단이 2007년에 초연한 창작발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추는 군무와 함께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고전과 발레의 완벽한 조화로 이제 국내 관객 뿐 아니라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품이 됐다. 또다른 발레 '심청'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정체성과 같은 작품이다. 발레단 35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외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효를 클래식 발레에 녹여내 해를 거듭할 수록 깊이와 변화를 더해가고 있는 작품이다. 3년만에 부활한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무대미술의 아름다움과 강렬한 남성발레에 무술동작을 접목한 고난도 안무는 보는 내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몸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대는 춘향의 집과 이공룡의 집, 춘향-이공룡의 2인무와 방자-향단의 2인무를 동시에 선보이며 박진감을 더했다. 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2회



유니버설발레단의 발레 심청. /유니버설발레단 제공(사진=김경진)

이영애 명창 초청 가야금병창 공연

오늘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서 무등울림 행사 일환

10월 한달간 열리고 있는 2019 무등울림 행사 중 광주시 무형문화재와 시민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15일 등이 이영애 가야금병창(시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이영애 가야금병창과 전수장학생 박해정, 이은경, 그 외 제자 등 50여명이 함께한다. 고수에는 김민철씨가 나선다.

최형욱 TBN광주교통방송 MC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목계 서상욱 서예연구가의 서예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첫번째 울림무대에서는 낙안읍성가, 가야금 2중주 '도라지'·'점필필'·'아리랑', 국악가요, 가야금 병창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판소리 심청가, 가야금 병창 흥보가에 이어 시와 음악의 어울림 시간이, 3부에서는 송원초등학교 반, 난초반, 매화반, 철쭉반, 광주국악라이온스의 어울림 무대가 잇따라



이영애 명창 마련된다. 모두 함께 어울림 마당으로 '너영나영', '오나라', '아리랑'을 부르며 공연은 마무리 된다. 이영애 무형문화재는 스승 박귀희 선생을 사사했으며, 전주대사습장원, 우륵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했다. 화순(사)한얼가야금 병창보존회, 순천 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를 설립했다. 임방울국악진흥회와 광주민속박물관회 이사를 역임했다. /이연수 기자

“헌 물건 되팔고 나눔 실천해요”

빛고를 나눔장터 19일 광주시청 앞 광장서
이봉주 사인 운동화 등 명사기증품 경매전

가정에서 쓰지 않는 헌 물건을 판매해 환경을 살리고, 수익금을 기부해 장애어린이를 돕는 시민 자선 축제가 열린다. 광주MBC, 사랑방미디어, 아름다운가게광주전남, 국제로타리3710지구,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16회 빛고를 나눔장터'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나눔같이 나눔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빛고를 나눔장터는 자원의 재사용과 환경 사랑을 체험하고, 판매와 구매가 곧 기부가 되는 행사다. 올해는 100여 개의 기업과 단체를 비롯해 6~13세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병아리장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린다.

버스킹 공연이 곳곳에서 열리고, 아름다운가게에 기증된 도서를 판매하는 '움직이는 책방', 공정무역 커피를 전시·판매하는 '아름다운 노천카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한마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시 30분부터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는 명사기증품 경매전에는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기증한 애장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친필사인 이 들어간 운동화·셔츠·모자를 내놓았고,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작품, 광주 FC 프로축구단의 유니폼·사인볼 등 다양한 물건이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지역 강소기업인 디케이산업에서 기증한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경매로 판매하며,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장애 어린이를 돕는데 쓰인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
|---------------------------|
| ■ 동구 |
| 중앙 223-2378 010-3635-1195 |
| 충장 233-4123 010-7755-8824 |
| 학운 225-0651 010-3640-2454 |
| ■ 서구 |
| 광천 374-2126 010-9602-2565 |
| 쌍촌 372-6659 010-6636-2775 |
| 화정 381-2156 010-4235-0902 |
| 상무 372-7625 010-5013-3889 |
| 풍암 681-3179 010-6634-5084 |
| ■ 남구 |
| 봉선 653-1920 010-9474-0212 |
| 진월 653-6900 010-5662-7449 |
| 월산 010-8245-1625 |
| 남부 651-1833 010-2943-8016 |
| 송하 010-8620-1925 |

| |
|---------------------------|
| ■ 북구 |
| 운암 525-3761 010-6886-3761 |
| 양산 574-3745 010-2646-3205 |
| 오치 261-9461 010-3629-0146 |
| 문흥 261-9462 010-7601-4480 |
| 일곡 573-3200 010-9273-0105 |
| 두암 264-7074 010-2684-6091 |
| 중흥 433-1503 010-4601-2080 |
| 북부 222-2524 010-2656-4543 |
| ■ 광산구 |
| 첨단 971-7374 010-3613-2312 |
| 신가 952-4864 010-3648-2549 |
| 월곡 952-1687 010-3612-1687 |
| 우산 951-9954 010-5018-0024 |
| 수완 959-1414 010-3101-2526 |
| 송정 941-7070 010-3976-0123 |
| 혁신 010-4623-9622 |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 | |
|---------------------|--------------------|--------------------|
| 광산지사 010-3601-1102 | 담양지사 010-4154-8277 | 영암지사 010-4624-8409 |
| 목포(갑) 010-3272-2765 | 곡성지사 010-6764-6100 | 무안지사 010-3621-8989 |
| 목포(을) 010-3635-6777 | 구례지사 010-5431-4006 | 함평지사 010-3773-2522 |
| 목포(병) 010-9359-1648 | 고흥지사 010-9151-2828 | 영광지사 010-8666-2882 |
| 여수지사 010-8648-1236 | 보성지사 010-5259-6441 | 장성지사 010-3666-1300 |
| 순천지사 010-2547-7890 | 화순지사 010-3666-5888 | 완도지사 010-5619-7020 |
| 나주(갑) 010-6401-9370 | 장흥지사 010-3613-6114 | 진도지사 010-3624-4777 |
| 나주(을) 010-3713-7458 | 강진지사 010-6646-1241 | 신안지사 010-4627-1472 |
| 광양지사 010-2630-1628 | 해남지사 010-8181-2627 | |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